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10호

COVID-19

실내스포츠 팀들, 코로나에 1년 농사 망칠까 ‘노심초사’

황선학 경기일보 기자

최의창 기고

윤석열 한국체육, 연장인가 도약인가

최의창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겸 서울대 스포츠진흥원장

#WeThe15

패럴림픽과 대선이 한국사회에 던진 질문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파리아이스하기 ‘동메달 결정전’도 중계하지 않는 나라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문체부, 대장체, IPC, 베이징서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 논의

권중훈 에이블뉴스 기자

스포츠제재 공동성명

37개국 스포츠 장관 공동성명 “러시아, 벨라루스 국제 스포츠 퇴출”

이석무 이데일리 스타in 기자

The Fact

허위학력으로 당선된 체육회장...대법 “선거 무효”

장우성 더팩트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실내스포츠 팀들, 코로나에 1년 농사 망칠까 '노심초사'

겨울 실내스포츠인 프로배구와 프로농구, 핸드볼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리그가 중단되거나 몰수 경기가 잇따르고 있어 포스트시즌(PS)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규시즌이 막바지로 치달고 있는 이들 실내스포츠는 1일 평균 30만명 안팎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프로배구는 여자부가 3개팀 이상의 확진자 발생으로 리그가 두 차례 중단돼 PS 일정 축소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도합 26일간 정규리그가 중단돼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에 따르면 PS 취소 사유가 되지만, KOVO는 긴급 이사회를 통해 일정 축소로 결정했다.

수원 현대건설이 정규시즌 우승에 승점 단 1점 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20일 리그가 속개된 후 또다시 리그가 중단되면 PS 취소는 불가피하다.

남자 프로배구 역시 무더기 감염자 발생으로 두 차례 리그가 중단된 이후 정상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리그 중단의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역대급 치열한 순위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위권 판도 변화와 PS 축소 가능성은 남아있다.

또 프로농구 역시 간헐적인 확진자 발생으로 몇몇 경기가 연기된데 이어, 2월 중순 무더기 확진자 발생으로 리그가 2주간 중단됐다. 선수 누적 확진자 수가 97명에 달한다. 다행히 지난 2일 속개돼 정상 운영 중이지만 각 구단들은 자칫 추가 확진자 발생시 리그 중단과 PS 축소 등의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노심초사 하고 있다.

농구와 더불어 선수간 몸싸움이 가장 치열한 핸드볼코리아리그 역시 코로나 암운이 드리워 일부 경기가 몰수게임 처리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 집단 확진자 발생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팀들의 10경기가 몰수게임 처리됐다. 이로 인해 종반으로 치달고 있는 여자부에서는 순위 변화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7명의 선수 구성이 안돼 게임도 치뤄보지 못하고 승리를 헌납해 순위 경쟁에서 한발 뒤처지는가 하면, 광명 SK 슈가글라이더즈 등은 감염으로 주전 상당수가 빠진 채 경기에 나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1년 농사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겨울철 실내스포츠 각 구단들은 막판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 기량 유지와 부상 방지는 물론, 감염 예방을 위한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도 연고 한 구단 관계자는 "리그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코로나19가 더욱 염려스럽다"면서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자칫 감염자 발생으로 1년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솔직히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최의창 기고] 윤석열 한국체육, 연장인가 도약인가



최의창
서울대 스포츠진흥원장

어제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과 하위 분과들이 결정되었다. 조연급에도 못 미치는 체육은 분과에 이름도 못 올리고 사회 복지문화분과 안에 기타 등등으로 쓸려 들어간 듯하다. 곧 분과별로 국정 기조가 될 정책 수립과 선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중에 윤석열 당선인의 체육공약들이 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저로 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의 불박이 고정 메뉴와 함께, 스포츠 활동 경비 소득공제, 개인별 운동량에 따른 건강보험 환급, 아웃도어 레저스포츠 지원, 스포츠 사회적 기업육성 등의 신메뉴도 눈에 띈다.

이 같은 공약들은 대선 때마다 꾸려지는 소위 체육정책팀에서 준비된다. 무능력한 나는 그런 팀에 불려가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 발로도 찾아가 본 적 없다. 그렇기는 해도 체육 짬밥이 어느덧 30년이나 되었으니, 대학 선생이라고 해서 한국체육 발전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천성이 게으르고 불민하여 그것을 정책화시키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당선자가 이미 제시한 체육공약들은 그 범위와 규모면에서 보면 한국체육을 외양적으로 서너 단계를 발전시키고도 남을 정도다. 그러나 내 눈에는 88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2018평창동계올림픽까지 마무리된 한국체육3.0의 연장선상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한 아이디어들이다(대략 3.5 정도?). 지난 30년간 진행된 한국체육3.0은 체육의 양적 발전으로 특징지어진다. 국내 체육인프라의 확충, 체육 전문인력의 증대, 스포츠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국제스포츠계에서의 상위 성적입상이 그 성과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체육 분야에서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극대화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윤석열의 한국체육은 4.0으로 도약해야 한다. 한국체육4.0의 차별화된 특징은 양적 발전의 바탕 위에 질적 성장을 위한 토대 쌓기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메달 강국으로 자리를 잡았으니, 스포츠 문화 부국으로의 성장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비유컨대, 체격 키우기보다는 체질 바꾸기에 더 신경 써야 한다. 더 많은 축구장, 더 큰 체육관, 더 높은 등위보다는, 더 참되고 더 올바르게 더 아름다운 스포츠를 실천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지난 30년을 숨 가쁘게 내달려온 대한민국 체육은 스포츠 경기력의 발전을 초과 충족시켰다. 반면에, 스포츠 문화력의 진전은 미미하다. 윤석열 정부의 체육정책은 한국체육의 질적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스포츠 선진국은 스포츠 경기와 스포츠 문화의 밖과 안이 멋지게 일치하는 문질빈빈의 스포츠를 펼쳐내는 곳이다. 과문한 대학선생이지만, 그쪽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기존의 공약들이 놓쳤음이 분명한 세 가지를 제안해본다.

첫째, 국민 기초교육을 위한 국가스포츠교육진흥원을 건립해야 한다. 한국체육3.0은 한국체육의 물리적, 인적 기틀을 마련한 시기다. 오락, 건강, 산업의 관점에서 시설과 인력, 프로팀과 산업 등의 토대를 다지고 튼실히 하였다. 큰 성과가 있었다. 이제는 여기에 교육의 관점을 더해서 국민 평생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스포츠교육을 진흥시켜야 한다. 이제 스포츠는, 읽기와 쓰기와 셈하기처럼, 기초교육이 되었다. 문자맹과 숫자맹이 생활에 불편함과 불이익을 받듯이, 스포츠를 못하고 모르는 것(운동맹)은 현대인에게 가장 큰 결점이자 불리함이 되었다.

일반 한국인이 평생에 걸쳐 가장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찾는 곳이 바로 스포츠장(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등)이다. 그 빈도와 강도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욱 증가한다. 아마도 국민평생교육 과목으로서 스포츠를 따라갈 수 있는 대상은 없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초교육기관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처럼, 평생교육으로서 스포츠교육을 제공해야만 한다. 전 국민이 생애주기 동안 스포츠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필요하다.

다음 장 계속

둘째, 기존 체육센터를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로 개선해야 한다. 전국의 공공 스포츠센터들이 신체활동 습득을 넘어 운동소양 함양을 지향하는 기초교육장으로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영,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익히고 맛보는 곳(physical activity center)에서 스포츠를 기능적, 지식적, 정서적으로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곳(sport literacy center)으로서 재탄생시켜야 한다. 운동으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해우소가 아니라, 자신을 지덕체 전반에 걸쳐 더욱 성장시키는 자기발전소가 되어야 한다.

문화체육센터는 스포츠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읽고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만들기까지 하는, 스포츠문화를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운동 향유 센터가 되어야 한다. 신체활동 공간 이외에도 스포츠 관련 도서 자료들을 모아 놓은 스포츠 도서관이나 스포츠를 소재로 한 시각적 미술 자료와 청각적 음악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갤러리를 운영한다. 스포츠 영화, 사진, 연극, 웹툰, 애니 등을 상영, 공연 및 전시할 수 있는 스포츠 극장이나 박물관을 설치한다. 또는 스포츠 경제, 정치, 문학, 역사 등의 주제로 저자 강연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스포츠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체육교사 이외에 체육 관련 국가자격증은 6종으로 분류된 스포츠지도사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현재 한국 체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매일 매일의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담자들이다. 2020년 현재 307,354명이 양성되었다(현직 체육교사는 약 13,000여명). 그런데 자격증 취득 이후에 이들의 전문성 함양이나 직업적 권익을 위한 전문적 조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십년에 한 번 갱신하는 운전면허증 소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작은 국내시장 규모에 비하여 자격증이 남발되어 인력 대체가 비교적 손쉬워서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대 스포츠 인력시장으로서 스포츠지도사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근무조건 개선을 담당하는 전문단체의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직적이고 단합된 노력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스포츠 서비스와 전문성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어야 한다. 영국은 UK Coaching, 캐나다는 Canadian Association of Coaches, 호주는 Australian Coaching Council 등의 단체를 이미 1970년대부터 지원해왔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교사를 국가건설의 역군이라고 칭송했는데, 스포츠지도사들이야말로 국민교육의 진짜 일꾼들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 여러 영역에서 대전환이 예상된다. 체육은 어떨 것인가? 아쉽게도, 철학이나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체육정책이나 윤석열 당선자의 그것이나 두드러진 질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대부분 한국체육3.0의 연장선 위에 놓여있다. 윤석열의 한국체육은 이전 정권보다 한 단계 도약된 4.0을 추구하는가? K-Pop과 영화 등 세계수준의 문화적 소양을 이미 만끽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단순 오락을 넘어 고급문화로서 스포츠를 수준 높게 향유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지는 것을 간절히 열망하는가? 곧 구성될 체육 분과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정책 선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WeThe15

[김세훈의 스포츠IN]

패럴림픽과 대선이 한국사회에 던진 질문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끝났다. 우리는 패럴림픽 선수들을 “영웅”이라고 말한다. “비장애인 올림픽은 메달을 따야 영웅이 되지만 패럴림픽 선수들은 모두 영웅”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 스포츠계는 패럴림픽을 이렇게 표현한다. “2,4년 간 쌓은 마일리지를 10일 동안 다 쓰고 남은 시간을 투명인간으로 사는 것”이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도쿄패럴림픽부터 ‘WeThe15’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전세계 15%, 즉 12억명이 장애인이라는 의미다. 통상적인 장애인 비율은 10%인데 왜 15%라고 했을까. 고혈압, 당뇨, 우울증, 노화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모두 ‘진행성 장애’를 가졌다는 뜻이다. 사회 안전망·복지 시스템 구축이 지금 장애를 가졌거나, 미래에 장애를 가질 나 자신을 위한 투자인 셈이다.

우리 사회는 젠더, 종교, 피부, 국적, 성취향 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차별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장애다. 장애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대상으로만 봐왔다.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휠체어 통로를 종종 접한다. 장애인 시설을 따로 만들기보다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대형마트에 설치된 긴 에스컬레이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넓고 완만한 통로가 좋은 예다. 많은 건설비용과 공간 차지는 문제가 안된다. 돈을 더 쓰고 공간을 더 확보하면 된다. 유럽 몇몇 나라에서는 마트 계산원 좌식 근무, 버스 바닥과 보도 바닥 높이 통을 법제화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조치다. 생활밀착형 약자중심 환경을 조성한다며 장애인 특화시설을 따로 만드는 게 또다른 차별, 생색내기가 돼 장애인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낸 행사가 최근 두차례 있었다. 하나는 패럴림픽이고 하나는 대선이다. 대선 후보들은 장애인 정책을 내놓았다. 관련 행사 때 장애인 국회의원이 누군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걸 싫어한다. 남의 도움을 받고 장애인 국회의원이 등장한 장면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존중이 아닌 보호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증거다.

대선도 끝났고 패럴림픽도 끝났다. 패럴림픽과 대선은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진다.

“장애인들이 뭘 잘 하는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알아보려고는 했나.”

패럴림픽 선수들은 귀국해 일상으로 돌아간다. 장애인 학습, 노동, 취업, 일상 등에서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장애인을 친구처럼, 이웃처럼, 너무 동정하지도, 너무 과장하지도 않고, 티나지 않고 꾸준히 챙기는 쪽으로 의식을 전환하는 게 밀린 숙제를 푸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파라아이스하키 '동메달 결정전'도 중계하지 않는 나라

4년 전 평창동계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파라아이스하키가 이탈리아를 꺾고 사상 첫 동메달을 목에 걸던 날, 강릉하키센터를 꽉 채운 국민들은 감동과 환희의 눈물을 펄펄 쏟았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관중석에서 목이 터져라 이들을 응원했다. 동메달이 확정된 후 '올보 캡틴' 한민수와 선수단이 낮은 썰매에 앉아 스틱을 두드리며 목놓아 불렀던 애국가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 저마다의 시련을 뛰어넘은 영웅들, 15년 넘게 동고동락하며, 쉽없이 썰매를 달려온 영웅들이 난생 처음 받아보는 응원이요, 평생 잊지 못할 함성이었다.

"패럴림픽이 끝나도 기억하겠다" 했지만 금세 지어질 줄 믿었던 선수촌 전용링크장의 약속도, 잊지 않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열기가 사그라든 뒤에도 그들만의 파라아이스하키는 계속됐다. 세계 4강을 유지하며 베이징행 티켓을 똑딱 따냈다. 베이징패럴림픽을 앞두고 지난 1월 훈련장에서 만난 정승환은 "그날의 응원과 함성을 기억한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벅차다"고 했다.

그날, 그 응원의 힘으로 4년간 묵묵히 썰매를 달려온 그 선수들은 베이징에서 어김없이 반짝였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9일, 이들은 보란듯이 세계 4강에 올랐다. 평창에선 1대0으로 신승했던 이탈리아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다. 평창 동메달 당시 '올보 캡틴' 한민수는 베이징서 선수 출신 첫 '사령탑'이 됐다. '원팀' 한민수호는 비록 준결승서 '세계 최강' 캐나다의 벽에 막혔지만 한치 물러섬 없는 투혼, 혼신의 보디체킹은 시종일관 눈부셨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베이징패럴림픽 마지막 도전, '안방' 중국과의 동메달 결정전이 12일 오후 9시5분(한국시각) 펼쳐진다.

4년 전 평창의 동메달결정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패럴림픽 TV 중계 확대"를 특별 지시했던 대통령은 이제 퇴임을 앞뒀다. 패럴림픽 기간 내내 경기장을 지켰던 '장애인 스포츠의 팬' 영부인, 덕분에 현장을 내내 수행했던 수많은 조직위 직원과 공무원들, 열혈 응원단도 지금 이곳엔 없다. 국내선 패럴림픽이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대통령 선거, 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철저히 매몰됐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32명은 베이징의 빙판과 설원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외롭고 높고 쓸쓸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13일 패럴림픽은 막을 내린다.

오늘 밤 펼쳐질 파라아이스하키 동메달결정전을 생중계하는 지상파, 종편 채널은 전무하다. 이번 대회 KBS는 TV 중계 총 11회 19시간(my K 일평균 30시간), MBC는 8회, SBS는 4회 방송시간을 편성했다. 대부분은 녹화방송이고 그나마도 '모두 잠든 후'인 밤 12시~새벽 2시, 한창 일할 시간인 낮 12~4시에 편성이 집중돼 있다. 일본 NHK는 주요경기 생중계는 물론 대회 기간 내내 매일 밤 10시30분, 패럴림픽 하이라이트를 편성했다. '장애인스포츠 선진국' 미국 NBC(TV중계 120시간 포함 총 230시간), 영국 채널4(TV중계 80시간+유튜브)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다음 장 계속



'꿀잼'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 재미도 없는데 단지 '장애인' 스포츠니 제발 좀 봐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다. 평창패럴림픽 파라아이스하키 한국-체코전, '빙판 메시' 정승환이 연장 골든골로 3대2 승리를 이끈 명승부는 스포츠기자 인생 최고의 '레전드' 경기였다. 축구, 야구, 그 어떤 현장보다 짜릿하고 오싹 소름이 돋았다. 물론 그날도 생중계는 없었다. 정승환, 이종경, 장동신이 눈빛 호흡으로 4골을 몰아친 베이징패럴림픽 이탈리아전도 그랬다. 이 '어메이징'한 경기를 함께 나눌 수 없는 안타까움, 한 사회가 지닌 선택과 시선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다. 평창올림픽에서 우리가 '팀킴'의 경기를 TV로 보지 못했다면 '컬링'이란 종목을 알기나 했을까. 두 번의 올림픽을 거쳐 '입덕'을 완료한 이들은 '컴어라운드' '더블 테이크아웃'을 줄줄 읊을 경지가 됐다. 파라아이스하키도 그렇다. 한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본 사람은 없다. 보면 반한다. 절로 팬이 된다.

폐막을 하루 앞둔 12일 베이징 메인미디어센터(MMC) 일본패럴림픽위원회 사무실 앞엔 금, 은, 동메달리스트 현황과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부스 앞 벽면엔 메달리스트 '대서특필' 1면 특별판이 도배됐다. 일본은 베이징패럴림픽도 자국 도쿄패럴림픽과 똑같은 온도로 다루고 있다. '평창'은 '베이징'을 잊었지만 '도쿄'는 '베이징'을 잊지 않았다.

새 대통령이 선출됐고, 생활체육, 학교체육 활성화와 함께 비인기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정책적 관심도 표명했다. 새 정부에선 부디 패럴림픽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롭지 않길, 국민 누구나 패럴림픽을 볼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길 바란다.

오늘 밤 파라아이스하키 동메달 결정전을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한 스포츠 팬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공유한다.

문체부, 대장체, IPC, 베이징서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 논의

‘2022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지난 5일 오전 중국 베이징 IPC 본부 호텔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재준 부회장(IPC 집행위원)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앤드류 파슨스 위원장과 환담을 가졌다.

이날 환담은 정부, 대한장애인체육회, IPC가 상호 장애인체육 발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담에서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 레거시 사업 결과 공유, IPC 거점 장애인체육중고등학교 건립, 글로벌 캠페인 #Wethe15 공동 홍보, 황연대성취상 운영 재개, 개발도상국 장애인체육 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오영우 차관은 “2018 평창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IPC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앤드류 파슨스 위원장은 “한국정부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은 매우 고무적이고 타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추후 IPC 차원의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재준 부회장은 “한국 장애인체육 발전과 미래 비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내준 앤드류 파슨스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IPC와 긴밀한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37개국 스포츠 장관 공동성명 “러시아, 벨라루스 국제 스포츠 퇴출”

한국을 비롯한 37개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지지한 벨라루스를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퇴출시키는데 최종 합의했다.

대한민국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37개국 스포츠 관련 장관들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영국의 나딘 도리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 스포츠 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의견 합의를 이룬 바 있다.

37개국 스포츠 관련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주도하고 벨라루스 정부가 지지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는 선택에 의한 전쟁으로서, 국제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다”며 “인권 존중과 국가 간의 평화적 관계는 국제 스포츠의 토대이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집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국제 스포츠 기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국제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거나 유치하거나 경기에서 수상할 수 없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의해 선발된 개인 선수,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대표하는 행정가와 팀(주요 프로축구팀과 같이 실질적으로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대표하는 단체, 도시, 명칭 포함)은 다른 국가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 출전이 금지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러시아나 벨라루스와 연계된 단체로부터의 후원 및 기타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각국 스포츠 장관들은 또한 “우리는 모든 국제 스포츠 기구가 위의 원칙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며, 이전에 이미 위의 원칙들을 채택한 모든 국제 스포츠 기구에 박수를 보낸다”며 “또한 우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2022년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회 출전을 금지한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위와 같은 제재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따른 협력이 다시 가능해질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국제 스포츠 기구와 관련 법률 기관이 러시아, 벨라루스 또는 우크라이나 클럽과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결정한 선수, 코치 및 임원을 제재하지 않을 것과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 의해 선발된 선수 또는 팀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스포츠 주최자를 추적하거나 제재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며 “아울러 우리는 국제 스포츠계가 우크라이나 국민과 계속 연대할 것과 가능한 한 우크라이나 스포츠의 지속을 지원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허위학력으로 당선된 체육회장... 대법 “선거 무효”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허위 학력을 내세웠다면 후보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모 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B씨가 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C씨는 군체육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면서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를 최종학력으로 밝혔지만 실제로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을 뿐이었다.

선거 결과 C씨가 당선되자 A,B씨는 중대한 사함을 거짓 기재했으므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했어야 한다고 체육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 기재는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허위 기재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사함"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체육회의 손을 들어줬다. 체육회가 위치한 군 인구는 3만여명, 체육회 선거인단도 55명 수준이어서 후보자의 능력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학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C씨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고 선거인 49명이 후보자 학력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도 작용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학력 허위 기재가 허용된다면,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과대평가해 공정한 판단을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봤다.

주간 스포츠 소식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경북 산불 성금 2000만원 기부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1_0001789727&cID=10501&pID=10500

'러시아 스포츠의 그늘' 리듬체조 여제도 폭로 "나는 괴롭힘 당하는 개였다"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081>

"편가르지 않는 정책"... 윤석열 시대 개막, 체육계 변화 바람은? [SS이슈]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03882?ref=naver>

서울시, 체육시설·어린이집 연계 '유아 스포츠단' 시범 운영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4_0001792096&cID=10201&pID=10200

'스포츠토토'와 '벤토맨' 外 스포츠 베팅 유사 행위는 모두 불법

<http://news.tf.co.kr/read/toto/1924322.htm>

광주시, '스포츠 도시 국제 포럼' 보조사업자 공모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115900054?input=1195m>

中, 자국 패럴림픽선수단에 축전..."최고 성적...스포츠정신 구현"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3062700083?input=1195m>

보령스포츠파크, '박지성 보령축구트레이닝센터'로 명명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164>

중고나라, 봄철 홈트 트렌드 분석... 실내 스포츠 용품 거래 증가

<http://www.gvalle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041>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